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4:24)

인도: 전종남 목사

*송 영 / 찬 양 대

*영 광 송 / 1장

*성시교독 / 3. 시편 4편

내 의의 하나님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1-8)

*신앙고백 / 사도신경

찬 송 / 299장

대표기도 / (1부) 김형순 집사 (2부) 이상혁 장로

헌금봉헌 / 51장 (1절)

성경봉독 / 마가복음 5:35~43

찬 양 / (2부) 시온찬양대

말 씀 / “달리다궁의 은혜” / 전종남 목사

(The Grace of Talitha Koum)

찬 송 / 302장

교회소식 / 인도자

*파송노래 / 620장 (1절)

*축 도 / 전종남 목사

*표시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시100:2)

인도: 전종남 목사

찬 송 / 250장, 220장 기 도 / 임진수 안수집사

성경봉독 / 요한복음 13:34~35 찬 양 / 호산나 찬양대

말 씀 /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 / 전종남 목사

(The Lord's New Commandment)

■ 저녁 7시

인도: 전종남 목사

찬 송 / 251장, 353장 성경봉독 / 디모데전서 1:18~20

말 씀 /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 전종남 목사

(Have Faith and a Good Conscience.)

■ 주일~금 새벽 5시

이사야 강해 / 전종남 목사

■ 저녁 8시 40분

인도 / 심상현 목사

다음 주간 기도

주일 1부	주일 2부	주일 오후
박영미 전도사	윤결태 장로	전복희 권사

예배 위원

1월	1부	2부
안내	김신영	임진수 이영희 전복희
현금	김춘자	유병용 김정순 최인숙 황하면

현금자 명단

(온라인 현금 농협 301-0134-5884-21 강서제일교회)

십일조	전종남(최경애) 김명순 김정순 김춘예 노상현(이정숙) 문미경 배복수 연윤희 이상혁(송미숙) 최인숙 최차순
감사헌금	전종남(최경애) 김순천(연윤희) 김영화 김형문(신승희) 문미경 심상현 염상희 유병용(황하면) 유진원 유진원(유예원) 윤진태(이기숙) 윤태오(김현아) 이상혁(송미숙) 이해숙 임진수(정해순) 전준형(전소원) 정규식(이석란) 최인숙 흥우표(윤명란) *특새: 남정옥 연윤희
구제헌금	전종남(최경애) *주일헌금: 한희숙
교육헌금	전종남(최경애) 김명순 김순천(연윤희) 김정순 문미경 박주해 이상혁(송미숙) 최인숙 최차순
선교헌금	전종남(최경애) 김순천(연윤희)(2곳) 문상필 유병용(황하면) 이상혁(송미숙) 2여
구역헌금	유초-중고

브니엘의 새 아침 (창32:24~32)

전 종 남 목사

우리가 살다 보면, 사방이 꽉 막힌 위기의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야곱도 그러했습니다. 형 에서가 그가 있는 곳으로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떨었습니다. 앞길이坎캄했습니다.

근 s 압복 강가에 홀로 남아, 밤새도록 하나님과 기도의 씨름을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어두운 밤에서, 환하게 밝은 <브니엘의 새 아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브니엘의 새 아침의 인생으로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하나님을 일대일로 만납시다(24절).

야곱은 가족과 재산을 모두 먼저 보낸 뒤 홀로 남았습니다. 그 고독의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일대일로 만나서, 기도의 씨름을 합니다.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 앞에 일대일로 설 때 시작됩니다. 야곱은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다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을 일대일로 만났습니다.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조용히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일대일로 만나십시오. 그곳에서 브니엘의 새 아침이 밝아 올 것입니다.

2.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끈질기게 매달립시다(25~26절).

하나님께서 야곱의 힘의 근원인 허벅지 관절을 치셨습니다. 그의 자아와 고집을 꺾으시기 위함입니다. 야곱은 견딜 수 없는 통증 속에서도,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외치며 하나님께 끈질기게 매달렸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만 꼭 붙잡을 때 찾아옵니다. 우리의 약함이 곧 강함입니다(고후12:10). 응답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할 때,坎캄한 밤은 물러가고 브니엘의 새 아침이 밝아옵니다.

3.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바로 세웁시다(27~31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 이름 ‘이스라엘’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거루어 이긴 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바로 세웠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침이 밝아왔고,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형 에서의 마음이 녹아내려서, 형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인생의坎캄한 밤을 지나고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일대일로 만나십시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브니엘의 새 아침>이 밝아 올 것입니다. 아멘.